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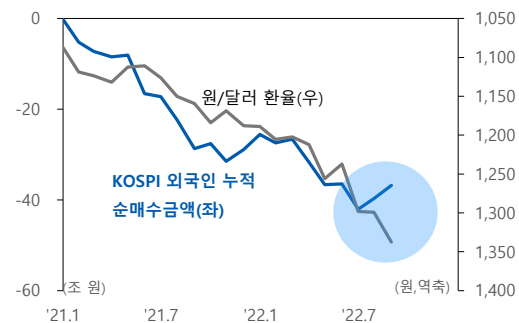


연속 반등의 성공과 주도주

1.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한 KOSPI

- 8월 국내증시는 2개월 연속 반등하며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
- 7월 이후 반등국면에서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도 하락 압력을 완화한 요인
-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율의 방향과 상관없이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최근 시황의 가장 큰 특징은 환율의 방향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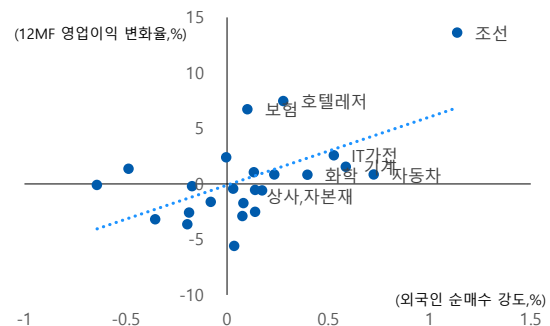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주도주 컨셉 내 차별화 가능성

- 8월 외국인은 2차전지를 포함한 IT가전, 자동차, 화학, 반도체 순으로 순매수
- 8월 한 달간의 시총대비 순매수 강도와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에서 비례하는 기울기가 나타나는 모습.
- 결국 이익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이익추정치 변화를 기준으로 주도주 컨셉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8월 이익추정치의 변화와 외국인의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강도는 비례하는 경향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한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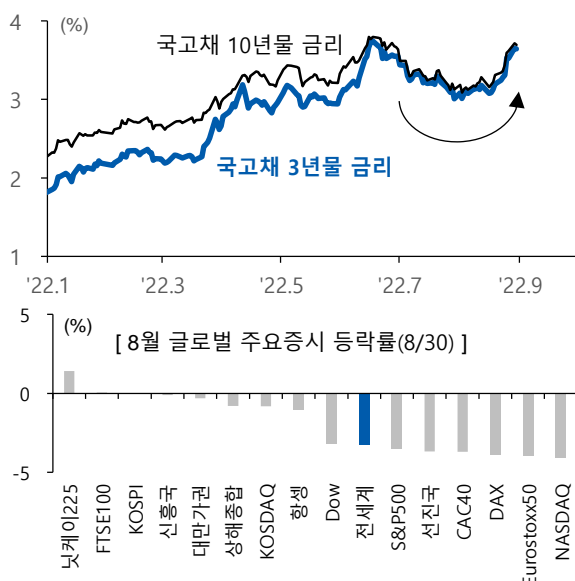
8월 글로벌 증시는 금리 부담으로 하락 전환했다. KOSPI도 재차 상승한 금리 영향에 월말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일(8/31) 0.9% 상승 마감하며 월간 +0.8%의 상승률로 8월을 마감했다.

8월 금통위 및 잭슨홀 전후의 금리 상승세에도 결국 KOSPI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7~8월 두 달간 6월 급락폭(353pt)의 약 40%를 만회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7월 한 달간 6월 낙폭을 거의 모두 만회한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인 부담이 없었던 점이 8월 아웃퍼폼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환율의 연고점 경신 및 2009년 4월 이후 13년여만의 최고치에도 KOSPI에 올해 최대 규모인 월간 3.6조원 순매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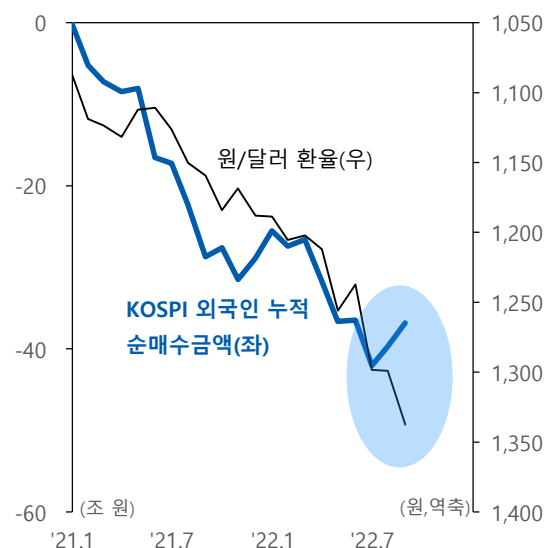
지난 시황 자료에서도 언급했듯, 외국인의 매매비중이 회복되며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다시금 중요해진 시점에서 환율의 방향과 상관 없이 2개월 연속으로 유입된 순매수세가 국내증시의 2개월 연속 반등을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차트1] 8월 하순 금리의 재상승에도 글로벌 증시 대비 선방한 국내증시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율의 연고점 경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었다는 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주도주 컨셉 내 차별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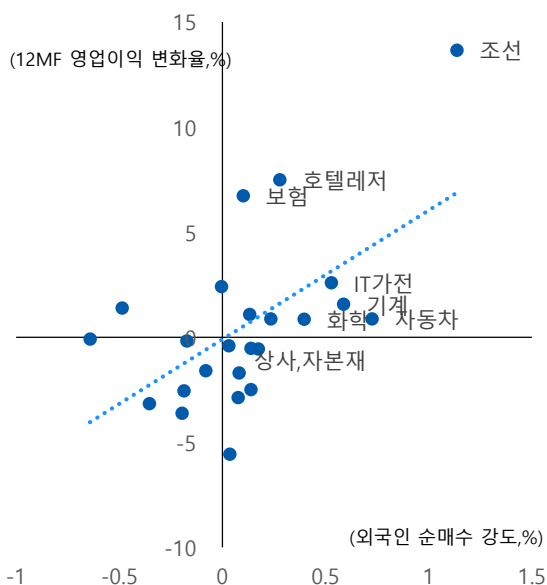
8월 외국인 순매수를 업종별로 나눠서 본 결과, 2차전지를 포함한 IT가전 업종부터 자동차, 화학, 반도체 순으로 순매수가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통신,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월간 평균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강도 측면에서는 조선 업종이 1위를 기록했다. 이를 영업이익 전망치의 변화와 함께 그려보면 비례하는 기울기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익 싸이클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익의 회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차전지를 비롯해 최근 주도주 컨셉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 기업들이 포함된 IT가전, 화학, 기계 업종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익 추정치 변화 이상의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방위산업이 포함된 상사, 자본재 업종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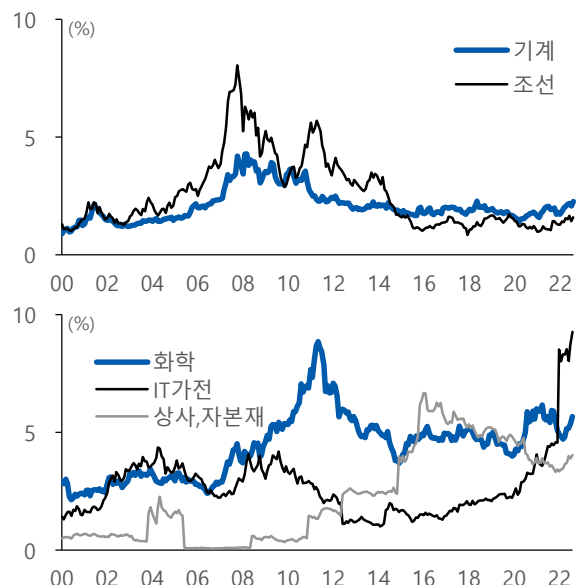
상대적인 관점에서 증시 내 업종별 시총 비중을 보더라도 IT가전, 화학 업종 순으로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주도주 컨셉 내에서도 상대적 관점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3] IT가전, 화학, 기계 등 업종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강했던 편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증시 내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 관점에서도 주도주 컨셉의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